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최대고비”

생산량 증가 및 인원축소 38개항 합의 ... 임금 포함 핵심쟁점 재논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삭감 폭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38개 항에서 합의를 이루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3월28일 제18차 본교섭을 갖고 생산량 증가와 인원 축소, 현금성 일부 수당 폐지 등 모두 38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생산량 증가를 비롯해 T/O 129개 축소 등 인원 부문 2개, 호봉상한제 등 임금 부문 2개, 사전 작업수당 폐지 등 수당 부문 4개, 유급일 규정 등 단체협상 부문 18개, 체력단련비 중단 등 복리후생 부문 19개 등 모두 7개 부문에 38개 조항이다.

합의 내용 가운데 단체협상 부문에서 장기근속자 포상을 워크아웃 기간에 중단하고 졸업 후에 지급키로 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현행을 유지했고 수당과 복리후생 부문은 대부분 중단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급 삭감을 비롯한 워크아웃 기간 임금동결, 상여삭감 등 임금과 식사교대 수당 등 수당, 연차휴가, 도급화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29일 오전 제19차 본교섭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협상 개시 이후 처음으로 38개 항에 합의하면서 채권단과 양해각서 체결 시한(31일)과 정리해고 예정일(4월 2일)을 앞두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19차 교섭에서는 핵심 쟁점인 임금과 상여금 삭감 폭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에 상여금 200% 반납을, 사측은 기본급 15%와 상여금 200% 각각 삭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상여금 200%에 대한 삭감과 반납의 차이와 기본급 삭감폭 5%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쟁점이다.

특히 노조가 27일 경고성 확대 간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31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4월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고 사측은 4월2일 도급화 1006명을 포함해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9>